



노컷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철저한 AI방역·닭오리고기 소비 동참 호소



올 겨울들어 전남지역 사육농가에서 첫 조류독감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담화문을 통해 철저한 방역과 철새 도래지 방문자제, 닭·오리고기 소비 동참을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올 들어 지난 10월 충남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현재 야생조류 23건, 가금농장 15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 철새도래지와 농경지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 통제하고 매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확산을 차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도민들에게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 농가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 겨울철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고 방문한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제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데다 유류비, 사료값 등 생산비 급증에 축산물 무관세 수입까지 더해져 가금농가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안전하므로 가금농가를 위해 소비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 전국 오리고기 요리경진대회 대상



올해의 오리요리에는 ‘건강식 단호박 오리구이’가 선정됐다.

‘가볍고 건강하게 헬시 플레저를 위한 오리요리’라는 주제로 지난달 26일 서울 신촌 나우쿠킹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오리요리 경진대회에서 ‘건강식 단호박 오리구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열린 오리요리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40개 팀이 대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대상은 소은성·유선표 팀이 차지했고, 최우수상에는 김하은·장지연 팀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상은 박효준 씨, 송성현·하규현 팀이 수상했으며, 이밖에도 14팀이 입선했다.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오리요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오리요리가 선보였고, 실제로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오리요리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오리요리 경진대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